
새시대 교수법 161호 한국공학교육기술학회 / 조벽

연설자는 곤잘 깊이가 부족한 면을 길이로 보충한다.

수업 마치기 2

지난 호에는 강의가 끝나갈 무렵 교수님께서 참가셔야 하는 말과 행동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호에는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강의를 항상 제 시간에 끝낸다.

강의가 미리 끝나는 것도 문제지만 제 시간에 끝이 나지 않고 5분씩이나 연장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수님께서 강의가 지연되는 현상을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교수님의 "열성"이라고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지연된 강의는 단지 잘못 구성된 강의, 또는 미숙하게 운영된 강의의 결과일 뿐입니다.

강의가 항상 제 시간에 끝난다면 학생들은 시간을 엄두에 둘 필요가 없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됩니다. 강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과연 강의가 제 시간에 끝날까, 혹시 지연되는 바람에 다음 강의를 지각하게 되지는 않을까, 다음 약속 장소까지 어떻게 가야 할까 생각하며 초조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학생들이 "아, 수업이 끝났구나. 이제 몇 시 몇 분이 되었겠구나."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강의가 제 시간에 끝날 것이라는 신뢰감이 형성되어야 뜻입니다.

2. 강의가 끝날 때까지 학습에 임하자고 당부한다.

강의 시간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되는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신뢰감이 형성되어도 강의 끝나기 전에 책가방 싸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대학의 들쭉날쭉한 강의 시간에 익숙한 상급반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갈 무렵 안절부절 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방 싸는 학생이 있으면 반드시 당부해야 합니다. 강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끝까지 학습에 임하자고 말합니다. 이럴 경우 절대로 야단치거나 고개를 흔들면서 경멸하는 눈초리를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그저 이런 습관에 길들여져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잔소리 코너 참조)

3. 강의가 끝났음을 알리는 말을 하나 선택하여 정기적으로 사용한다.

학생들에게 강의가 끝났음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나 선택하십시오 . 그리고 매 강의마다 변함없이 사용하십시오. 이로 하여금 학생들이 지난 호에 나열된 다른 구어적 또는 비구어적 암시에 따르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록 교수님께서 분필을 놓으셔도 학생들은 이것은 강의의 끝을 알리는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오늘 강의는 이로써 끝났습니다.
Have a good day! (이에 준 하는 간단한 인사말)
다음 강의 시간에 봅시다.

물론 지난 호에 나열된 암시를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분필을 놓고 손을 일부러 과장되게 털거나 펼쳐 놓았던 교과서를 탁 단아버리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이라도 다 좋지만 중요한 점은 한 가지를 정해서 매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잔소리 코너>

동료 교육자들이 다 함께 좋은 교수법을 적용할 경우 교육 효과는 쉽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좋은 교수법을 알게되면 동료 교육자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교육 품질을 높이자는 "문화"(가치관과 이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를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문화가 있을 때에 발전이 가능하고 교수님들도 스트레스 덜 받고 보람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조벽, 2002

이전 발간물은 웹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http://www.me.mtu.edu/~peckcho/korean.htm>

이 무료 간행물을 직접 받아 보시기 원하시면 subscribe teachwell-1 을 적어 peckcho@mtu.edu로 보내시면 자동 가입됩니다.

가입을 취소하실 경우에는 unsubscribe teachwell-1 을 적어 peckcho@mtu.edu로 보내시면 됩니다.

다른 사항은 조 벽 교수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peckcho@mtu.edu 전화: 미국(906) 487-2891 팩스: (906) 487-2822
